

# 오프라인 유통 절대강자 빅3, 이젠 이커머스 ‘삼국지’

## 신세계

SSG닷컴 출범... 시너지 극대화

## 롯데

‘투게더 앱’ 선택 접근성 높여

## 홈플러스

이달 말 온라인 전략 간담회 개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온라인 유통은 성장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신세계, 롯데, 홈플러스 등 오프라인 유통 강자들이 온라인 시장 영토까지 확장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온라인쇼핑 거래액에 따르면 매년 시장은 두 자리수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온라인쇼핑거래액은 분기별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지난해 11월은 월 거래액만 1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현재 GDP의 8%를 차지하고 있는 큰 시장이며, GDP 내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국 Statista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온라인 유통 거래액은 520억달러를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 소매 산업의 총 거래액은 2016년 총 360억달러로 2015년 대비 21% 성장했다.

2017년 총 거래액은 약 407억달러로 2016년 대비 약 16%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2014년에서 2015년에도 19%의 성장률은 기록, 2017년에는 성장폭은 소폭 줄어들었지만 온라인 소매업은 전체 소매액 중 16%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 연간 거래액은 1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에도 이러한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3월 1일 그룹 내 계열사들의 온라인 채널을 통합한 SSG.COM(SSG닷컴)을 출범했다. 이에 따라 통합 투자와 단일화된 의사 결정, 전문성 강화 등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올해 매출 목표는 3조1000억원이며 2023년까지 매출 1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먼저, 신세계그룹은 온라인 사업의 핵심 경쟁력인 배송서비스에 투자를 집중할 방침이다. 온라인 전체 주문량의 80%

를 차지하는 수도권 배송효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 전용 센터 구축에 힘을 쏟는다.

이에 보정(NE.O 001), 김포(NE.O 002) 온라인센터에 이어 김포 지역에 추가로 최첨단 온라인센터(NE.O 003)를 건설하고 있으며, 공정률 70%로 올 하반기 오픈 예정이다.

롯데 역시 지난해 8월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본부’를 공식 출범했으며, 이달 말 첫 번째 사업인 ‘투게더 앱’을 선보인다.

투게더 앱은 로그인 한 번으로 롯데의 7개 계열사 서비스를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앱 간 이동이 아닌 화면 전환 기능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정 물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동일 키워드로 다른 6개 물에 몇 개 상품이 있는지를 안내한다. 사용자는 더 많은 상품 정보를 보유한 계열사 서비스로 이동해 간편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020년 롯데 e커머스사업본부는 모든 온라인몰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쇼핑플랫폼 ‘롯데 원 앱’(가칭)을 론칭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탈백화점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대기업의 경우 온라인 채널의 판매 기능 강화보다는 쇼핑 경험의 차별화를 구현하거나,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를 확보, 고객경험을 제고시키기 위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홈플러스도 이커머스 경쟁에 가세할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이달 말 ‘홈플러스 온라인 경영 전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간담회에서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 온라인 사업과 홈플러스의 성장 전략에 대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홈플러스의 온라인 사업 자금은 이달 29일 상장 예정인 홈플러스 리츠를 통해 마련한다.

홈플러스 리츠는 기초자산으로 전국 지역별 핵심 상권에 위치한 홈플러스 점포 51개를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약 4조 3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리츠를 통해 확보한 자금의 일부는 온라인 사업 강화에 사용할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신원식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그룹은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롯데글로벌로지스 통합법인 출범 및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 롯데그룹, 2개 물류사 합쳤다

3조 규모 ‘롯데글로벌로지스’ 출범  
물류 영역 윈스톱 서비스 제공 기대  
3000억 규모 ‘메가허브 터미널’ 추진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롯데로지스틱스를 합친 롯데그룹의 통합 물류회사가 새롭게 출범했다.

양사 합병 통합법인으로 지난 1일 탄생한 롯데글로벌로지스는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통합법인 출범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유통·식품·제조 등의 물류 인프라와 운영 노하우를 지닌 롯데로지스틱스와 택배 사업을 하며 해외 12개국에 네트워크를 보유한 롯데글로벌로지스가 결합한

것이다. 이를 통해 매출 3조원 규모, 국내 2위인 롯데그룹 유일의 물류회사가 만들어졌다. 물류 택배업계 1위 업체인 CJ대한통운의 지난해 매출액은 9조2197억원으로 롯데글로벌로지스의 3배가량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양사 통합으로 해외 현지 물류와 국내 내륙 수송, 창고운영 배송까지 이어지는 물류 전체 영역에서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찬북 롯데글로벌로지스대표는 인사말에서 “전략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해 2025년 매출 5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물류 경쟁력 확보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3000억원 규모

의 ‘메가허브(Mega Hub) 터미널’ 건설을 추진한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오는 2022년까지 충북 진천군 초평 은암산업단지에 물류센터를 신설했다고 하고 지난해 말 충북도·진천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물류센터는 14만4666㎡ 부지에 연면적 15만9394㎡의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또 인수·합병(M&A)을 통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로 진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는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과 이원준 유통 사업부(BU) 부회장, 이영호 식품BU장, 박근태 CJ대한통운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팔로어 전략한 애플, 삼성 따라 폴더블폰 개발

애플이 폴더블 제품 개발을 위해 구부러지는 유리를 개발 중으로 알려졌다.

6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애플이 유리를 공급하는 업체인 코닝은 최근 잘 구부러지는 유리 제품 개발에 한창이다. 반경 5mm까지 접을 수 있는 0.1mm 두께 제품이다.

코닝은 2017년 5월 애플로부터 연구개발과 자본설비 등을 위한 자금 2억달러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다. 코닝의 제품 개발 움직임이 애플과 관련이 깊은 이유다.

애플이 구부러지는 유리를 개발하는 이유는 내구성이 높은 폴더블 폰을 만들

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2020년 폴더블폰 시장 진출이 예상되는 상황, 폴더블폰에서 우려되는 내구성 문제를 해결해 격차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혁신가’를 자처하던 애플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다. 최근 수년간 별다른 혁신이 없던 가운데, 폴더블 폰에서도 ‘팔로워’로 전략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그나마도 내구성 높은 폴더블폰 출시를 훨씬 늦춰질 전망이다. 코닝측에서 개발 일정을 2~3년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실제 제품 출시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김재웅 기자

## 르노삼성, 노사 임단협 본교섭 시작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다시 점점 찾기에 나서며 6개월 동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임금 및 단체협상 타결 여부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회사 경영실명을 포함한 17차 임단협 본교섭을 지난 5일부터 시작해 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임단협 협상을 현재까지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된 노사간 임단협 본교섭에서는 경영실적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주를 이뤘다. 하루 미뤄진 6일 교섭에서도 별 다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노조 측은 현재 기본급 10만667원 인상, 특별격려금 300만원, 2교대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생산격려금 350%, 초과이익분배금 선지급 300만원 등 최대 14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하는 상황이다.

본교섭이 진행되고 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사측이 노조 요구에 일방적으로 응하면 르노삼성은 인건비에 부담을 안게 된다. 르노그룹으로부터 올해 계약이 끝나는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로그’의 수락 생산 후속 물량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해진다.

앞서 도미니 시노라 르노삼성 대표는 지난 26일 오후 부산공장에서 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를 만난 자리에서 3월 8일까지 임단협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신차배정과 물량 확보 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뜻을 밝히며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노조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부분 파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르노삼성차 임단협의 조속한 타결을 재차 촉구하는 부산상공회 호소문을 발표했으며 르노삼성차는 오는 9월 생산 종료되는 닛산 로그 이후의 수출 물량 배정을 위해 이번 주 내 임단협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조 집행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 SKT, ADT캡스·SK인포섹과 ‘융합보안’ 미래상 제시

세계보안엑스포 참가... 공동 부스 마련

SK텔레콤은 보안 자회사 ADT캡스, SK인포섹과 ‘융합보안’의 미래상을 보안 전시회 세계보안엑스포(SECON2019)에서 제시한다고 6일 밝혔다.

SK텔레콤과 ADT캡스, SK인포섹은 이날부터 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보안전시회 SECON2019에 참가해 공동 전시부스를 마련하고 3사의 통신 및 ICT기술, 물리보안과 정보보안을 아우르는 ‘융합보안’ 서비스를 선보인다. SK텔레콤과 보안 자회사 ADT캡스,

SK인포섹이 공동으로 보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2018년 자회사 편입 이후 처음이다.

SK텔레콤과 ADT캡스, SK인포섹은 전시부스에 ‘ICT 융합보안’ 존을 만든다. 융합보안 존에는 ADT캡스의 물리보안과 SK인포섹의 정보보안에 SK텔레콤의 정보통신기술(CT)이 접목된 융합보안, 양자기술을 활용한 양자암호보안에 대한 소개 등 보안서비스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SK인포섹은 국내 유일의 융합보안 관련 플랫폼 ‘시큐디움 IoT’를 소개한다. 시

큐디움 IoT는 정보보안과 물리보안, 운영기술(OT), 산업제어 등 산업에서 쓰이는 시스템 정보를 수집·분석한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사이버 위협은 물론,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기업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ADT캡스는 맞춤형 통합빌딩관리시스템 사이트큐브를 선보인다. 엘리베이터 제어, 주차관리, 출입통제 등 빌딩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기술(IT) 영역인 지능형 영상감시와 에너지 제어 기능을 더해 건물 전체를 윈스톱으로 관리·제어하는 융합보안서비스다.

/김나인 기자 silkni@